Daishin 증권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반도체와 조선 훈풍에 코스피 상승, 쏠림 현상은 어딘가 찜찜해

- 코스피 주도한 반도체 & 조선, 수급 쏠림에 여타 종목 약세
- 실물자산 강세, 자산 인플레이션(Asset Inflation) 가시화되나
- 이슈에 따른 업종/종목 쏠림 장세 시현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자동차/부품: 기회의 자동차 (CES 2026 D-13)

- CES 현대차/만도/위아/SOS랩/넥스트칩/모트렉스/삼보/아우토크립트 참가
- AI 기반의 자율주행/로봇 기술 고도화 전략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
- Top Picks 현대차/현대모비스/에스엘. 실적개선+모멘텀 리레이팅 예상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4Q25 Preview] 아모레퍼시픽: 본업 성장 흐름 지속

- 4Q25에도 COSRX 제외한 본업 서구권 매출은 견조한 성장 지속
- 중국 오프라인 매장 정리하며 매출 하락 불가피하나 흑자 기조 유지
- 브랜드와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사로 변화 중

정한솔. hansol.jung@daishin.com

Strategy

반도체와 조선 훈풍에 코스피 상승, 쏠림 현상은 어딘가 찜찜해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코스피 주도한 반도체 & 조선, 수급 쏠림에 여타 종목 약세
- 실물자산 강세, 자산 인플레이션(Asset Inflation) 가시화되나
- 이슈에 따른 업종/종목 쏠림 장세 시현

코스피 주도한 반도체 & 조선, 수급 쏠림에 여타 종목 약세

–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2거래일 연속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전일 미국 증시 3대지수는 3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고, 산타랠리 기대와 주요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훈풍으로 작용.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전기전자 대형주에 집중, 코스피 상승 종목 수는 224개에 그치며 쏠림 현상 뚜렷. 반도체와 조선 업종을 제외한다면 코스피 마이너스 기록. 코스닥은 –1%대 하락하며 약세

– **반도체**: 엔비디아, 2월 중순까지 중국에 H200칩 출하 개시 예정. 초기물량 4~8만 개 규모 예상

삼성전자(+0.9%), SK하이닉스(+0.7%) 등

– **조선/방산**: 트럼프, 미 해군 골든함대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한화와 프리깃함 공동 건조계획 공개

한화오션(+12.5%), 한화엔진(+4.3%), 한화시스템(+3.5%), HD현대중공업(+3.7%)

실물자산 강세, 자산 인플레이션(Asset Inflation) 가시화되나

– 금 가격이 4,400 달러를 돌파하면서 2개월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달러 인덱스는 98선까지 하락. 그에 반해 채권 금리 하락은 제한적

– 12월 FOMC에서 시행된 연준의 유동성 완화 조치와 26년 추가 금리인하 기대 등이 주식과 원자재 등 실물자산 강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 달러–원 환율은 1,484원까지 상승, 그럼에도 외국인 매수세와 코스피 상승 시현

이슈에 따른 업종/종목 쏠림 장세 시현

– **엔터테인먼트**: 홍콩 '드림콘서트 2026' 공연이 중국 후난위성TV 방송 예정. 한한령 완화 기대 유입 시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상승 패턴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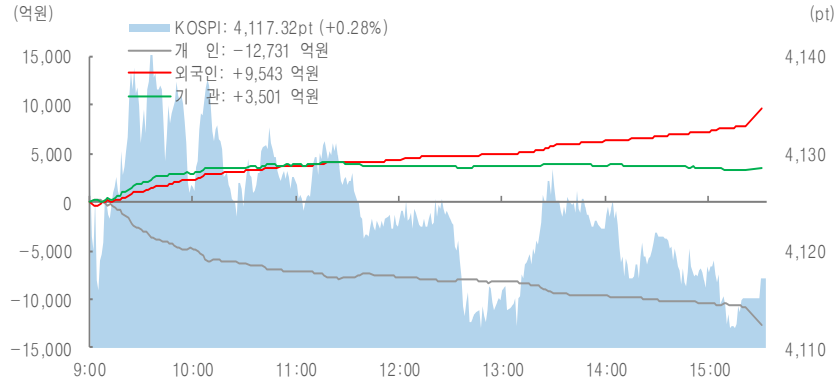
하이브(+5.0%), 에스엠(+7.6%), 와이지엔터테인먼트(+4.3%), JYP Ent.(+3.1%) 등

– **로봇**: 포스코DX(+11.4%)는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기업 투자 기대감에 강세. 레인보우로보틱스(+6.2%), 현대무벡스(+4.8%) 등 엔비디아 협력 기대감이 유효한 삼성–현대 계열사 차별적 상승

– **풍력에너지**: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해상 풍력 임대 중단을 명령

씨에스윈드(–5.6%), LS마린솔루션(–4.5%) 등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ssue Comment

자동차/부품

기회의 자동차 (CES 2026 D-13)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 CES 현대차/만도/위아/SOS랩/넥스트칩/모트렉스/삼보/아우토크립트 참가
- AI 기반의 자율주행/로봇 기술 고도화 전략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
- Top Picks 현대차/현대모비스/에스엘. 실적개선 + 모멘텀 리레이팅 예상

2026년 CES 참가 자동차 업체: 현대차/HL만도/현대위아

1/6~9일 4일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6 개최 예정. 'Innovators Show Up(혁신가의 등장)'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엔 약 4,500개 기업이 참여 예정. 기조연설 일정 참고해보면, CES 2026의 핵심 내용은 피지컬AI/로보틱스/모빌리티/디지털헬스가 될 것으로 예상

국내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현대차/HL만도/현대위아/에스오에스랩/넥스트칩/모트렉스/삼보A&T/아우토크립트가 참가 예정. 글로벌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BMW/Honda/Geely/Waymo 등 업체가 참가 예정

재차 부각될 로보틱스 & 자율주행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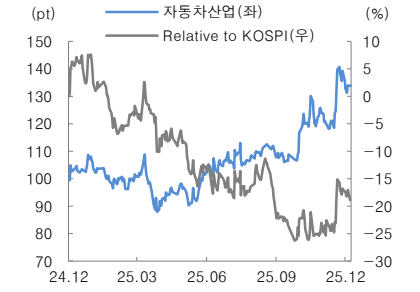
주요 업체의 전시/발표 내용 감안 시, CES 통해 AI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 재차 부각될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센서 통한 데이터 확보 => AI 통한 분석력 => 양산성,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피지컬AI 중심 양산성이 중요하게 거론될 것

현대차: 'Partnering Human Progress: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를 테마로 Atlas(휴머노이드) 시현 및 AI로보틱스 생태계 확장 전략 발표 계획

HL만도: 'Intelligence In Action'을 테마로 로봇/AI/모빌리티 관련 발표 예정. 액츄에이터(HL만도), 캐리(HL로보틱스 물류로봇)/디봇픽스(HL디앤아이한라 골프디봇) 전시 예정

현대위아: '연결의 여정'을 테마로 열관리/구동부품/로보틱스 관련 기술 발표 예정. 듀얼 등속조인트 비롯해 로보틱스 기술(직렬-탄성 액츄에이터) 활용한 ARS 공개 예정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1.6	22.9	27.9	30.2
상대수익률	4.7	3.8	-5.9	-23.7



2026년 자동차 업종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

1) 미국 점유율 상승, 2) 실적 개선, 3) 로보틱스 밸류체인 확장, 4) 자율주행 전략 변화에 따른 리레이팅 예상하기 때문. 실적 펀더멘털 개선과 밸류 리레이팅 동반되며 자동차 업종의 주가 상승 지속될 것으로 전망. 12월 1주 로봇 모멘텀 부각으로 상승했던 업종 주가는 이벤트(만도CID) 소멸로 단기 조정. **2026년 주가 상승 요인들 감안 시, 금번 조정을 자동차 업종의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

Top Picks: 현대차, 현대모비스, 에스엘. 실적개선 + 로보틱스/자율주행 가치 반영되며 자동차 업종 주가 리레이팅 예상

주목할 이벤트: [2026.01월 첫주] 미국 CES => [1Q26] 테슬라 옵티머스 V3 공개, 현대차 AVP사업부 인사 => [1H26] 미국 로봇산업 지원책 발표 => [2Q26] 유니트리 상장 => [2H26] 1X Neo 가정용 로봇 인도, HD현대로보틱스 상장작업, 테슬라/BYD/BD 초도 양산, 현대차 SDV 페이스카 공개, 테슬라 Cybercab 양산

Earnings Preview

아모레퍼시픽 (090430)

본업 성장 흐름 지속

정한솔
hansol.jung@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60,000
유지

현재주가 121,000
(25.12.23)

화장품업종

- 4Q25에도 COSRX 제외한 본업 서구권 매출은 견조한 성장 지속
- 중국 오프라인 매장 정리하며 매출 하락 불가피하나 흑자 기조 유지
- 브랜드와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사로 변화 중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글로벌 리밸런싱 가속화되며 미주·유럽 등 서구권 매출 성장 지속. 특히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라네즈 외에도 올해 신규 런칭한 에스트라의 글로벌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 지난 3년간 실적 부담으로 작용해온 중국도 수익성 중심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며 올해 연간 흑자전환과 내년에도 흑자 기조 유지될 전망. 최근 부진했던 COSRX도 신규 라인업을 확장하며 점진적으로 매출 회복 예상. 브랜드와 지역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사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 중국과 COSRX 매출 회복이 주가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60,000원 유지

4Q25 Preview: 본업 성장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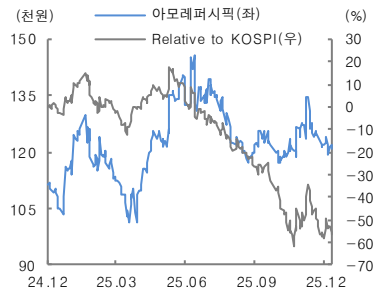
3Q25 매출액 1조 1,083억원(YoY 2%), 영업이익 930억원(YoY 19%, OPM 8.4%) 전망. COSRX 제외 시 매출액 YoY 3%, 영업이익 YoY 36% 추정

[국내] 매출액 5,640억원(YoY 3%), 영업이익 345억원(YoY -4%, OPM 6.1%) 전망. 이커머스와 MBS 채널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마트·아리따움 등 일부 전통 채널은 수익성 위주 운영으로 매출 역성장, 면세는 관광객 증가에도 소비 패턴 변화로 전년 수준 예상. 전반적으로 채널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흐름은 유효하나 희망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영업이익은 일시적으로 감소 추정

[해외] 매출액 5,258억원(YoY -1%), 영업이익 582억원(YoY 36%, OPM 11.1%) 전망. 중화권 및 COSRX 부진으로 해외 매출 성장 제한적이나 본업 해외 성장 스토리 여전히 유효. COSRX 제외 서구권(미주·EMEA) 매출 두 자릿수 성장 예상. 라네즈와 에스트라가 온·오프라인 전반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로 파악. 특히 상반기 신규 런칭한 에스트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신규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일본은 이니스프리·에뛰드 등 원브랜드숍 정리 이후 에스트라·헤라 중심으로 브랜드 믹스가 개선되며 20% 수준의 고성장 기대. 반면 중화권은 기저 부담과 설화수 백화점 매장 축소 등 오프라인 채널 조정 영향으로 매출액 YoY -11% 감소 예상. 다만 이는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선택. 설화수는 저수익 매장 정리와 과도한 판촉을 지양하며 브랜드력 유지를 위한 투자만 집행하며 중국 법인은 연간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전망. COSRX는 높은 기저로 매출 YoY -8% 역성장 예상되며, 마케팅 비용이 집중되는 분기 특성상 수익성은 20% 초반 수준 전망. 채널과 가격 재정비가 마무리되며 매출 역성장폭 완화중. 2026년 스네일 라인 매출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RX라인 및 신제품 중심 매출 회복 기대

KOSPI	4117.32
시가총액	7,54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3%
자본금(보통주)	2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5,700원 / 101,2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293억원
외국인지분율	22.77%
주요주주	아모레퍼시픽그룹 외 18 인 50.15% 국민연금공단 7.4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0	-1.9	-14.8	9.7
상대수익률	-15.7	-17.0	-37.7	-34.9



(단위: 십억원, %)

구분	4Q24	3Q25	4Q25(F)					1Q26		
			직전 추정	당사 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 추정	YoY	QoQ
매출액	1,092	1,017	1,131	1,108	1.5	9.0	1,156	1,124	5.3	1.4
영업이익	78	92	94	93	18.6	1.3	105	117	-0.8	25.5
순이익	-55	66	104	103	흑전	56.8	85	106	-4.2	2.6

자료: 아모레퍼시픽,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